

1·2
2021

재외동포의



특 집 _ “코로나19 백신 2월부터 접종,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인터뷰 _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 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화 제 _ 전 세계 한인 단체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에 늘 강했듯이 서로 돕고 단결하여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재단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동포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월초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국제행사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언택트 시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해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정체성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임기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차세대 동포들에게 우리 언어와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쳐 한민족의 얼을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세계인들은 우리 한민족을 ‘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안은 고려(高麗)라는 한자말에서 나왔고 이는 ‘매우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름다울까요? 대한민국의 금수강산도 아름답고 우리 문화도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홍익(弘益)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이념입니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 정체성의 중심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 전염병이 물질문명의 남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질문명을 대체할 새로운 생태적 문명으로서의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인류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구시민의식

(Global Citizenship)을 가져야 하는데 홍익정신이야말로 바로 지구시민의식의 출발점입니다.

750만 재외동포들께서 우리는 홍익정신으로 시작한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동포사회와 거주국 국민, 그리고 전 인류를 포용과 화합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지구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23년간 전 세계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은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늘 함께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세배





- 02 신년사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04 특집 “코로나19 백신 2월부터 접종,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 06 인터뷰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 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 08 화제 전 세계 한인 단체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 10 글로벌 코리아 한복 입고 취임 선서한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순자씨’
외인부대 저격수 출신 송안식 프랑스 한인회장 취임
‘K-컬처 in 쿠바’ 책 펴낸 홍지영 재미 작가
- 12 한민족 공감 영화 ‘미나리’ 주연 스티븐 연 “내 배역은 내 아버지의 삶”
- 13 주목! 차세대 유권자 85%인 백인 지지로 하원 재선 성공한 앤디 김
- 14 동포소식 각국 한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동포에 온정 손길 외
- 17 동포 캘린더 중조선족기업가협회장, 선양·다롄 동포에 마스크 기증 외
- 18 유공 동포 ❶ 한국-베트남 교류와 한인사회 초석 다진 차상덕 응
- 19 유공 동포 ❷ 日 한신 대지진 피해자 돌본 재일동포 의사 안국창
- 20 지구촌 통신원 ❶ 미주한인 이민 118년... 코로나19속 미국 곳곳서 기념행사
- 21 지구촌 통신원 ❷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 “새로운 100년 만들 계기”
- 22 동포문학 가족상봉
박시드니(덴마크)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협약 체결 외
- 26 기고문 “750만 개의 영롱한 구슬을 실에 꿰어 보배로 만듭시다”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월부터 접종, 북핵 평화체제 대화 성공하면 다 해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코로나 충격 극복·민생 안정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 정국 구상을 공개했다. 대통령은 120여 명의 내외신 기자에게 방역·사회·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2월부터 백신접종 시작,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핵과의 대화 노력 지속,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주택 공급 확대에 실수요자 주거 불안 해소 등을 강조했다.

백신 접종으로 11월엔 집단면역 형성

우선 국민적 관심이 제일 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이면 대체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이 시작되고, 또 누락된 분들의 접종을 4분기에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종 시기나 집단면역 형성 시기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른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이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안정성 불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이 개발한 백신을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므로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1

이어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은 무로다.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 계획을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다만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란 것은 아직 기우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접종에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화체제 구축 위해 대화 노력 지속할 것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



2



3

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의 남쪽 담방이 합의사항이지만 고집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 담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전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고 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일본, 북한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아 전체가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과 관련한 공동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외교안보에 있어 특별한 동맹관계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할필요 없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경제·문화·보건·기후변화 등까지 포괄하는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포용적 회복과 주거 불안 해소에도 집중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 화두는 '포용적 회복'과 '주거 불안 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경제활력을 되찾겠다는 게 포용적 회복이다.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과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합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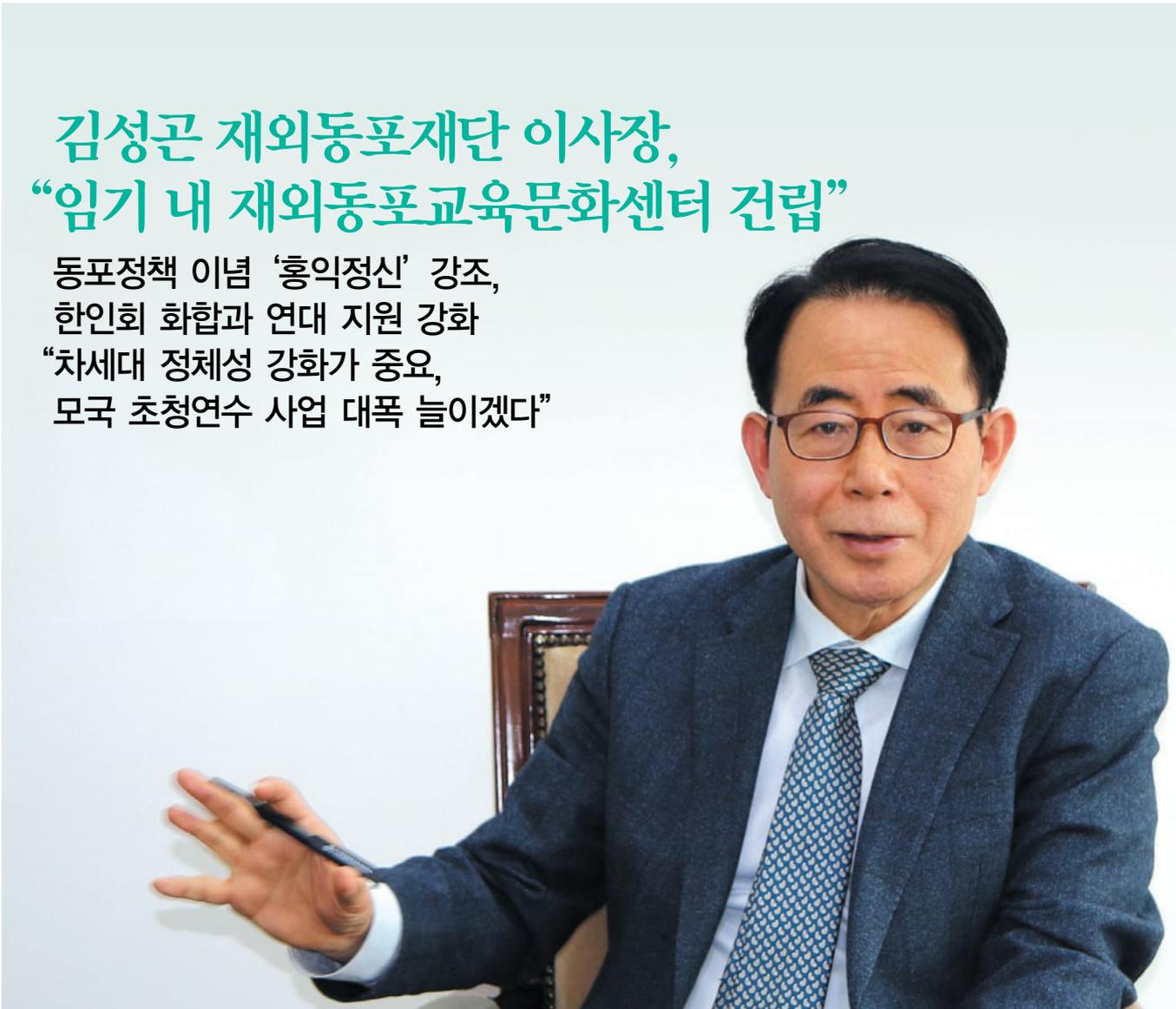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구제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 지원과 피해 계층 선별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보편과 선별을 나눌 수 없다. 방역단계와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한 선택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2021년에도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을 기존 계획보다 더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참\]](#)

1.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역·사회·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2021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1월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남쪽 담방이 합의사항이지만 고집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을 '포용적 회복'과 '주거 불안 해소'라고 소개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기 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동포정책 이념 ‘홍익정신’ 강조,
한인회 화합과 연대 지원 강화
“차세대 정체성 강화가 중요,
모국 초청연수 사업 대폭 늘이겠다”



김성곤 이사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임기 내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국과 750만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를 임기 내 꼭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곤(69) 이사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이 센터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세울 계획”이라며 “올해 정부로부터 12억 7천만 원의 설계 예산도 배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3년 임기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지어질 센터는 300석 규모의 홀과 해외 이주 역사 유물 전시관 등을 갖춘다.

김 이사장은 “센터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교육과 강연회·

포럼·세미나·동포 행사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외동포 역사·유물의 ‘디지털 아카이브’도 갖춰 전시·연구 활동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센터에서는 내국인의 재외동포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 소통·화합 앞장서는 한인회 되도록 적극 조정·지원

센터 건립 다음으로 김 이사장이 내세운 목표는 한인회 활성화다. 동포사회의 중심 단체인 ‘한인회’가 모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정 역할을 적극 펼치겠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비대면의 일상화'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사업의 온라인화를 시급히 추진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영사조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해외에서 신변 안전 조치 등이 강화됐고, 코로나19 백신도 한국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에게는 무료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유대인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인 '세계유대인의회'(World Jewish Congress)를 벤치마킹해 현재 한인회장들의 교류의 장인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일부지만 한인회가 선거 때마다 몸살을 앓고 분란에 휩싸이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연대와 화합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별·대륙별 한인회장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연합회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동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연 1회 10월 개최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도 세분화해 업종·지역·대륙별 활성화 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차세대 모국 연수 확대·홍익정신 기본 이념 도입

김 이사장은 '차세대 양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매년 해외 유대인 청소년을 5만 명 초청하는 것처럼 우리도 차세대 동포 모국 연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동포 2, 3세대의 민족 정체성을 키우고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행사가 초청 연수”라며 “대상 청소년이 10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초청하는 것은 매년 1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초청 규모의 확대와 함께 초청 시기도 매년 여름 방학이 아니라 연중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역대 재외선거 투표율이 총선 1.9~3.2%, 대선 7.1~11.2%로 낮아서 우편·전자 투표 도입이 시급하다는 동포사회의 요청에 대해서 그는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우편·전자 투표를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여야 합의가 중요한 사항이라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와 함께 “투표권은 있지만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엄격히 말해 헌법에 명시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은 절반만 실현된 상황”이라며 “선거에서 재외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프랑스처럼 궁극적으로는 동포사회 출신 정치인이 나오도록 선거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 그는 “명칭이나 기관 문제보



김성곤 이사장은 한인회장들의 교류의 장인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이사장은 앞으로 재외선거 피선거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에 마련된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상하이 한인회 임원들.

다 동포사회를 위한 예산 증액과 사업 확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며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선거권자만도 215만 명으로 경상북도 인구인 230만 명에 근접하지만, 재단의 올해 예산은 651억 원인데 경상북도는 10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세계한민민주회의 수석부회장을 지내는 등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재외동포재단법에 명시된 설립 목적에 더해 동포정책의 기본 이념을 확립해 놓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가 모국에 이로운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구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을 육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이념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홍익(弘益)정신’이 이에 부합합니다. 이를 한민족 정체성의 중심 철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포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장**

“코로나19 극복에 집중, 모국과 동반 상생에 앞장서겠다”

전 세계 한인 단체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위기 속에 빛난 K-방역, 역경 극복에 힘 모아야”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지난해 지구촌을 뒤덮은 세계적 전염병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금은 이 같은 신년 덕담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새롭게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의 해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시작한 우리 한민족에게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으며 가족과도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그 우직함은 은근과 끈기로 설명되는 우리 민족의 품성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묵묵히 이를 극복하려 노력해 왔고, 'K-방역'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전 세계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소와 같은 끈기와 성실함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계적 전염병을 극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에 찬 희망을 가져 봅니다.

수많은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낸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새기며 올 한 해도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져 모든 한인 동포들의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 원년 열어가자”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나라와 이웃 간에 담을 쌓고 거리를 두는 생활에 익숙해진 반면에 공생공영의 실천만이 인류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2020년에 '유럽한인 100년의 발자취'를 성공적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유럽에 첫발을 디딘 한인들은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1차 대전의 참화로 희생당한 병사들의 시신을 거두고 도시를

건설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였습니다. 또 1960년대부터는 많은 이들이 독일로 건너와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며 조국 근대화의 초석도 놓았습니다. 운명적으로 유럽한인사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건국으로부터 세계경제대국을 이룬 오늘날까지 마중물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2021년 유럽한인사회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손에 손을 잡고 분단의 벽을 넘어, 한반도 통일의 원년을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재외국민 권익 위해 참정권 보장에 힘쓰겠다”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2020년은 모두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 총연은 동포 여러분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동포 여러분은 뼈를 깎는 고통과 시련을 인내와 지혜로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가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총연은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10% 미만의 재외선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이나 취약계층 지원 또는 마스크 우선 보급 등에서 재외동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이 투표라고 봅니다.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도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올해도 총연은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워 선거제도 개선을 국내외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위해 시민교류에 앞장설 것”

여건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올해는 무엇보다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민교류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일 동포에게 한국과 일본은 다 고향과 같습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 기초해 과거 역사문제에 얽매지 않고 양국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순수 교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민단 단원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모두의 생활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로 인한 4차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도 한국에 친근함을 느끼는 일본인이 적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차세대가 긍정적인 역사관과 양국 관계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도 일조하면서 동포사회 위문 가정 방문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현과 모국 수출 도울 것”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2020년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과 동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이겨냈기에 앞으로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한인 경제인들이 1981년 결성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가 2021년으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제품, 그리고 청년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그 길에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 68개국 143개 지회 회원과 차세대들은 전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비즈니스가 이뤄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포 권익 실현에 앞장, 원코리아로 화합하자”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에서는 재외동포보호법 제정을 위해 수년간 발로 뛰고 청원했습니다. 완벽한 재외동포보호법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21년 1월 16일 시행됐습니다.

헌법 2조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 특히 아프리카·중동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도 국내 거주 국민처럼 균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020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결의했던 재외선거에서 제대로 된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한 점을 상기하여, 우리 스스로 권익 신장을 위해 서로 독려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국의 남북·동서 간 화합을 위해서는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힘든 조건이지만 한마음으로 뭉쳐 ‘원 코리아’(One Korea)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네트워크 확대, 새해에는 얼굴 맞대기를”

최금란 세계한민족여성재단 이사장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1천2백여 회원 여러분!

지난 해는 코로나19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코윈) 대회가 무산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업을 확대해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을 만드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많은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의 호전 여부와 관련이 크지만 새해에는 코윈 한국 대회와 코위너 스페인 컨벤션이 꼭 진행되어 우리 회원들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고, 저희 재단과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회원들도 많이 만나 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도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 멋진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의 회원들과 우리 동포 여러분, 현재의 어려운 역경을 잘 극복해 내시고 건승하시길 바라며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복 입고 취임 선서한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순자씨’ “출신 상징 · 어머니의 명예뿐 아니라 미국 다양성의 증거”

미국의 한국계 여성 연방 하원의원인 메릴린 스트릭랜드(58 · 한국명 순자)가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 선서했다.

1월 3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 취임 · 개원식에서는 붉은색 저고리에 짙은 푸른색 치마 차림의 한복을 입은 여성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이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스트릭랜드 의원이다.

스트릭랜드 의원의 ‘한복 취임’은 한국계 인사의 미 연방의회 진출을 동료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상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계 미국인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적 유산을 상징하고 우리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주, 그리고 국민의 의회에서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더 큰 증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여성과 유색 여성의 수가 역대 최대로 의원 구성이 가장 다양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이번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의원으로 취임한 게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워싱턴주 제10 선거구에서 승리한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국인 어머니 김인민 씨와 미군인 흑인 아버지 윌리 스트릭랜드 사이에서 1962년 9월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살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주 타코마 시의원을 거쳐 시장에 당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직했다. 타코마 시장으로서는 첫 동양계이자 첫 흑인 여성이었다.

그는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자신이 당선될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워싱턴주를 대표하는 첫 흑인 미국인이자, 230년 역사의 의회 역사상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외인부대 저격수 출신 송안식 프랑스 한인회장 취임 “한인회관 확대, 한인사회 소통 · 화합 · 발전 이루겠다”

지난해 말 선거에서 당선된 송안식(52) 프랑스 한인회장이 1월 16일 오후 온라인 줌을 통해 취임식을 열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송 회장은 “2만여 명의 한인 사회와 더 소통하겠다. 지방 한인회와도 연계를 강화해 화합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며 “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핑계로 멈춰있는 한인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더 넓고 깊이 동포들에게 다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회장은 앞으로 한인회의 모든 행사를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비좁은 한인회관을 확장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제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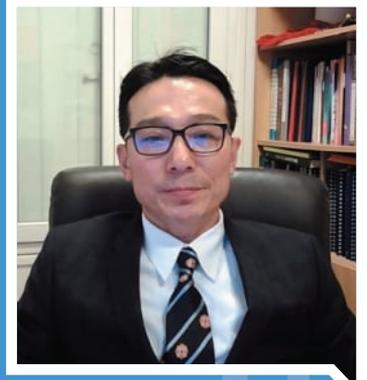
2세대에게는 우리의 미풍양속과 예절, 전통놀이 등을 전수하는 장으로 운용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송 회장은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2월 5~6일)를 비롯해 3·1절 기념식, 재불 한인 체육대회(5월 1일), 한국전쟁 기념식(6월 25일), 광복절 기념식, 코리아인 페스티벌(9월), 정기총회(12월) 등 올해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선대 회장들이 일궈놓은 좋은 전통과 업적은 계승하고 전통예절인 장유유서 정신을 전파하는 본보기가 되는 한인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36대 회장인 그는 1831년 창설된 프랑스군 외인부대 '레종 에트랑제'에서 저격수로 복무한 이색 경력이다. 경남 남해 출신인 그는 한국에서 군 복무 후 1996년 외인부대에 지원해 콩고와 가봉, 보스니아 내전에서 근무했고, 고공 낙하 훈련만 300번 가까이 받았다.

송 회장은 2001년 외인부대를 전역한 후 정착해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고 공사하는 일을 하다가 2014년 관련 공사를 맡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외인부대 한인 전우회 회장으로, 한국전쟁 참전 프랑스 노병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K-컬처 in 쿠바’ 책 펴낸 홍지영 재미 작가 “한류 젊은층에 영향, BTS 쿠바 콘서트 기대”

최근 ‘K-컬처 in 쿠바 : 쿠바에서 한류를 찾다’를 펴낸 홍지영(49) 작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쿠바를 찾으면서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꼈다”며 “폐쇄적이고 개방에 소극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던 쿠바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것 같다. K팝 등 한국 문화가 많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00년 미국에 정착해 남네바다주립대 교육학과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홍 작가는 “경직된 분위기 대신 활기가 대신했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었다”며 “최근 들어 10~20대에서 큰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가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 등에 매료된 대학생들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한류팬이 1만 명이 넘는다는 것.

“인상적인 사실은 해외 콘텐츠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킨다는 점이었어요. 1년 동안 월급을 모아 미국 등에서 열린 한국 가수 공연을 보러 가는 이들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인기의 요인으로 우리 드라마나 노랫말에 공통으로 담긴 성실성이나 열정, 희망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꼽았다. 한국 문화가 쿠바의 젊은 세대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창구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쿠바가 한국과 미수교국이고, 현지 한인도 소수지만 앞으로 가까워질 여지가 많다고 믿고 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잠잠해지면 방탄소년단이 쿠바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다”며 “양국 문화를 알리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창**



영화 '미나리' 주연 스티븐 연 “내 배역은 내 아버지의 삶”

시사회서 샌드라 오도 울먹여… “30대 시절 부모님 떠올려”

영화 '미나리'에서 주연을 맡은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븐 연이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온라인 특별시사회에서 눈물을 흘렸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한국명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한인 이민자 가정의 고단한 삶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 미국 영화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스티븐 연은 한예리와 함께 이민자 가정의 부부 역할을 맡았고, 윤여정은 이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할머니를 연기했다.

스티븐 연은 시사회 뒤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가 진행한 감독 및 배우와의 대화 행사에서 “미나리 출연은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며 한인2세 배우로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을 털어냈다.

그는 “이민자 2세 배우로서 한국적 방식과 미국의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고 어떤 면에서 언어 소통과 문화적 경계 때문에 부모님과 단절돼있다”며 “우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나리에 출연하면서 내가 맡은 역할이 내 아버지의 삶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고, “미나리 출연은 내 아버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고, 그 경험은 나에게 감동적이었다”고 울먹였다.

사회를 맡은 배우 샌드라 오도 “미나리 주인공의 피부색은 내 어머니 피부색과 같다”며 “미나리를 보면서 30대의 제 부모님을 상상했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계 배우로서 이 영화를 볼 때 특별한 감정을 갖지



영화 '미나리'에서 주연을 맡은 한국계 미국배우 스티븐 연(맨 앞쪽)은 미국 LA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극중 역할이 아버지의 삶과 닮았다고 밝혔다.

않기란 힘든 일”이라며 “미나리는 매우 감동적이고 위대한 미국 영화 목록에 오를 매우 심오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으로 시사회에 참여한 윤여정과 한예리는 미나리가 풀어내는 이야기의 보편성에 주목했다.

윤여정은 “미나리 대본을 읽었을 때 아주 현실적이었다”며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고군분투하는 미나리 속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밝혔다.

한예리는 미나리가 호평을 받는 이유를 “이민자의 삶을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모든 세대의 공감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사회에는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미나리에서 내 가족이 미국에 올 때 품었던 희망과 기회, 많은 투쟁과 도전 과제들을 봤다”고 회고했고, 스트릭랜드 의원은 “미나리는 한국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진정으로 미국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인 정치인 대표성 있어, 미국 어디서든 당선 가능”

유권자 85%인 백인 지지로 하원 재선 성공한 앤디 김

한국계 앤디 김(39) 미국 하원의원이 한인 의원 4명을 배출한 지난 선거 결과와 관련, 한인 정치인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14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들의 온라인 후원회에 참석해 백인 유권자가 절대다수인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데 대해 “유권자들이 워싱턴DC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사람으로 한국계를 선택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지역구인 뉴저지주(州) 제3선거구는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85% 이상이고 한인 유권자는 1%에도 못 미친다.

또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지역구이지만, 김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했다.

그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의 지역구도 백인 유권자가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거론한 뒤 “한인 유권자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지역구가 아닌 미국 어느 곳에 서라도 한인이 미국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국계 여성을 포함해 모두 4명의 한인 의원이 당선된 지난 선거가 한인 정치인이 미국 주류 정치계에 진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김 의원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을 직접 겪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 미국 국무부에 첫발을 디딘 이후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로부터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은 담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원래 중동 전문가로서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을 맡을 생각도 없었지만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었다”며 “브라질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브라질 출신과 독일 문제를 다루는 독



1월 7일 미국 국회의사당 시위대 난입 사태 후 자진해서 의사당을 청소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

일 혈통도 있었는데 국무부 보안 담당 부서가 나에게 대해서만 선을 그어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 및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오바마 키즈’의 일원으로, 당시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과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한인 사회는 외부에 대한 포용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청소하는 자신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 “인터넷에서 ‘한국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증거’라는 댓글을 봤는데 재미있었다”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훼손된 의사당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한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동포에 온정 손길

생필품·방역품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 진행

미국 뉴욕한인회 등 각국 한인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동포에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미국 뉴욕한인회는 현지시간으로 1월 19~21일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1천 637개 가구가 식품권을 제공 받았다.

뉴욕 민권센터는 임대료를 못 내는 한인들을 지원한다. 한인 기업들이 낸 40만 달러의 기부금을 가구당 1천 달러를 지원하거나 주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상담 또는 신청 대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미 세인트루이스 한인회는 '취약계층 생필품 나누기 행사'를 1월 16~17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재독일한인총연합회는 독거노인과 기저질환자, 유학생, 실직자



재독일한인총연합회는 독거노인 등 독일 취약계층 동포에게 생필품 등이 담긴 '행복 상자'를 전달했다.

등에게 '생필품·마스크 행복 상자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박선유 재독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독일 내 한인언론인 교포신문·우리뉴스·유로저널과 함께 '2020 연말연시 행복의 쌀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해 기부금과 쌀 100포대, 마스크 4천 장을 모았고, 재외동포재단과 자체 충당한 재정으로 '행복 상자'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시드니한국총영사관은 20명의 한인 변호사와 함께 호주에 거주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유학생·동포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하고 있다. 신용불량·채무, 고용, 미성년자 자녀 관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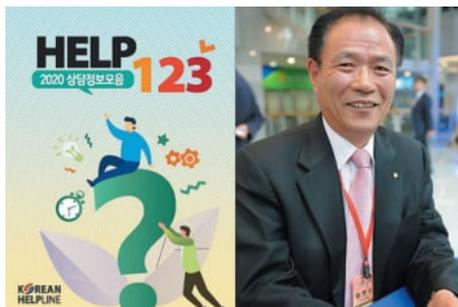
복지·교육... 뉴질랜드 이민 애로사항 담은 사례집 발간

한인 NGO '코리안 헬프라인', 10년간 무료 상담 진행

4만여 명에 이르는 뉴질랜드 한인들의 정착을 돕는 NGO(비정부기구) '코리안 헬프라인'(대표 이연수)이 최근 발간한 'HELP123'는 이민 후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담고 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단체를 설립해 10년째 이끄는 이연수 대표는 "그동안 상담해온 것 중에 빈도가 높거나 이민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아 책자로 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복지, 일반생활, 분쟁·교통·소비자, 비자·시민권, 대인관계, 교육, 주택 등 7개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123가지가 담겨 있으며 어느 기관이나 단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10년째 '코리안 헬프라인'을 이끄는 이연수 대표(사진 우측)와 최근 발간한 한인 애로사항 상담사례집 'HELP123'

'코리안 헬프라인'은 전화와 이메일로 애로사항을 듣고 조언과 정보 제공을 10년째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과 현지 지방자치단체, 한인 기업,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5명의 상담위원이 자원봉사로 매주 월~금요일 상담을 진행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으로 건강식품회사인 유비바이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온 덕분에 대표적 상담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코리안 헬프라인'은 홈페이지(www.koreanhelpline.org.nz)에 파일로 올려서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성금으로 만든 '우리 달력' 사할린동포에 3천 부 배포 한인사회, “고국이 우릴 잊지 않고 있어 감사하다”

지구촌동포연대(KIN)는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현지 거주 동포를 위해 제작한 '우리 달력'을 최근 모두 배포했다.

사할린 동포는 기일이거나 명절, 농사, 손 없는 날 등 세시 풍속을 지키고 있으나 이를 표기한 달력이 없어서 러시아 달력에 따로 표기해왔다.

KIN은 온라인 홍보와 모금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1'을 3천여 부 제작했다. 올해 여덟 번째로 만든 달력에는 한인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이성은 사진작가가 촬영한 제주도 풍광을 담았고 뒷면에는 후원에 동참한 시민의 응원 문구도 넣었다.

또 우리말을 모르는 차세대도 전통문화를 알 수 있게 명절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도 표기했다.



지구촌동포연대가 사할린 동포를 위해 음력이 표기된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21'을 제작해 배포했다.

1천200여 부를 사할린한인협회에 전달했고 협회는 사유즈노사할린스크와 코르사코프, 홈스크, 돌린스크 등 한인 거주 주요 도시에 배포했다. 1천700여 부는 인천과 김포, 파주 등지의 국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사회에 보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 거주 사할린 한인에게도 100부를 돌렸다.

제작과 운송에는 재외동포재단·NH농협생명·(주)한국서부발전도 후원했다.

KIN 관계자는 “달력을 받는 동포들마다 ‘고국이 우릴 잊지 않고 따뜻한 온정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반겼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고려해 영주귀국 동포에게는 1만여 장의 마스크도 함께 배달했고, 사할린 현지에도 마스크를 구매해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인 김베라·이유리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당선

5년 임기, “고려인 등 소수민족 권익 대변하겠다”

카자흐스탄에서 두 명의 고려인 동포가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13일 발표한 예비 총선결과에 따르면, 김베라(39) 국가자원봉사자연합회(NVL)회장과 이유리(44) 카자흐스탄민족회의(ANK) 위원이 여당인 '누르 오타' 당의 후보와 소수민족 대표의 자격으로 각각 하원에 진출하게 됐다.

이들은 중앙선거위의 최종 개표결과 발표에 따라 공식적인 당선인이 됐다. 이들은 “5년 임기동안 고려인을 비롯한 소수민족 권익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베라는 자원봉사자연합회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방역에 나선 의료진과 군, 경찰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또 시민사회의 모금활동을 펼쳐



카자흐스탄 하원의원에 당선된 고려인 김베라·이유리(좌측부터)

이들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했다.

이유리는 변호사로서 카스피은행 최고 관리자,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 임원 등을 지냈다.

중앙선거위는 유권자 1천190만 명 중 63.3%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하원은 재적 107명의 의원 가운데 98명이 총선을 통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9명의 의원은 130여 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 개발·추진을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카자흐국민회의(ANK)에서 선출된다.

민족회의는 1995년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 갈등을 막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상 자문기구다. 상·하원 각각 8명과 9명의 의원이 민족회의 몫으로 배정돼 있다.

박호선 몽골 · 이병수 미얀마 한인회장... 각국 한인회장 취임 2년 임기 시작, “상부상조하는 네트워크 구축 힘쓰겠다”

지난해 연말 국가별로 새 한인회장들이 잇따라 선출돼 새해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11대 중국한국인회 회장에는 하정수 전 중국 화남연합회장이 선출됐다. 하 회장은 오랜 숙원인 중국한국인회 정식인가 등록, 투명 회계시스템 구축, 2세대 장학 사업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하정수 중국한국인회 회장, 박호선(몽골), 이병수(미얀마), 백창기(아르헨티나), 이준용(중국 상하이), 김완수(중국 이유), 백진혁(방글라데시 치타공) 신임 한인회장.

몽골 한인회는 2천500여 명의 한인 대표로 박호선 회장이 취임했다 밝혔다.

박 회장은 시그마 몽골리아라는 엘리베이터 설치회사를 운영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몽골 태권도협회 부회장, 대암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년 동안 상부상조하는 끈끈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얀마 한인회는 인삼 등 한국산 제약 제품을 미얀마에 유통해온 이병수 KPC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에 맞춰 비대면 사업 확대·한인네

트워크 강화·복지 개선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29대 한인회를 이끌었던 백창기 현 회장의 연임을 선거로 결정했다. 백 회장은 2015년 한인 이민 5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중국 상해한국인(상)회 26대 회장에는 이준용 상하이 CGRC 대표가 당선됐고, 저장성 도시인 이우 한국인(상)회 회장에는 김완수 회장이 선임됐다.

이밖에 방글라데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치타공의 초대 한인회장에 백진혁 전 방글라데시한인회 부회장이 선출됐다.

광주고려인마을, 러 연해주 아리랑요양원 설립 모금운동

“독거노인 돌보는 시설 시급, 동포사회 동참 호소”

국내 최대 고려인 집거지인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아리랑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고려인 선조의 고향인 연해주에 고려인 노인들의 고단한 삶도 위로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돕자는 취지다.

신조야 대표는 “지난 10년 사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일부가 연해주로 이주해 현재 2만여 명이 사는데 자녀들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로 돈 벌러 나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다”며 “이들의 숙원사업이 요양원 설립이지만 예산과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근에 고려인을 위해 정부가 세운 '아리랑요양원' 전경.

신 대표는 우선 재한 고려인 사회 모금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모금운동을 확대하고 해외 거주 고려인 사회에도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고려인문화협회에 제공했고, 재외동포재단이 폐허가 된 유치원 건물을 최고의 요양시설로 리모델링했다. 현재 요양

원은 건강진단을 통해 전염성 질환이나 중증환자, 정신질환자가 아닌 고령의 고려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 대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인력을 파견해 고려인 동포를 돌보는 우즈베키스탄 요양원처럼 연해주 고려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조선족기업가협회, 선양·다롄 동포에 마스크 기증

표성룡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은 최근 라오닝성 선양과 다롄 지역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 방역 마스크 3만장을 기부했다. 표 회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뭉쳐야 하기에 다함께 고비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조선족단체 관계자는 “조선족사회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회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라오닝신성실업유한공사를 운영하는 표 회장은 제19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역임했다.



사할린동포 귀국·정착 지원 특별법 1월1일부터 시행

사할린 동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5월 제정된 이 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영주귀국·정착 지원사업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도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동포 본인과 배우자, 장애 자녀만 지원했다. 법안은 또 사할린 동포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정착지원 신청 절차와 함께 지원 여부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중동·아프리카 평화통일 글짓기대회 30개국 328명 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는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0 평화통일 글짓기대회'에서 중고등부 최우수상은 영국에서 응모한 허지원 학생에게, 초등부 최우수상은 오스트리아 전시는 학생에게 돌아갔다고 1월 6일 밝혔다. '꿈이 이뤄지는 통일'과 '왜 통일이 돼야 하나?', '우리에게 평화의 한반도란' 등을 주제로 30개국 58개 한글학교 328명이 참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고등부와 청소년부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美 다솜한국학교, 이중언어로 배우는 역사문화 교재 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한국어·영어 이중언어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발간했다. '아름다운 한국, 한국인의 삶' (Beautiful Korea · The Life of Koreans)이란 제목의 교재로, 현지화한 3, 4세와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도 쉽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2016년부터 역사문화 교재를 발간해 온 최미영 교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정규학교에서 인종학 프로그램으로 소수민족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한 상황에 맞춰 다문화 관점 등이 반영된 이중언어 교재를 계속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차세대에 한국 문화 전수

공주대 사범대 원격해외봉사단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초중고 재학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 문화 스쿨'을 1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했다. 고려인 자녀들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돕고 예비교사에게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사범대 교수·학생들로 구성된 원격해외교육봉사단은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생 30여 명에게 한국 역사·문화·지리·음악 수업을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이 참가 학생 선발 등을 도왔고, 키르기스국립대 한국어과 학생들이 통역을 지원했다.



美캘리포니아주 의회 올해 첫 발의 결의안... '태권도의 날' 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새해 처음 발의된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라고 새런 퀴크-실바 의원의 보좌관인 박동우 씨가 1월 4일 전했다. 퀴크-실바 의원과 한인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ACR 1)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 기리지는 내용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다. 박 씨는 “ACR 1은 주의회 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양 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면 주지사 서명 절차 없이 발효된다”며 “통과되면 매년 '태권도의 날'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베트남 교류와 한인사회 초석 다진 차상덕 옹

한인사회 단합과 차세대 육성 앞장, 첫 한인사회장으로 추모

베트남 한인 이주사의 산증인으로 동포들이 베트남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차상덕(89) 호찌민 한인회 고문이 숙환으로 별세해 한인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1월 4일 호찌민한인회가 밝혔다.

한양대 재학시절 6·25 전쟁에 참전해 중위로 예편 후 건설회사에서 철골구조 전문가로 활동한 차 고문은 1961년 베트남 소재 미국 건설회사에 입사하면서 베트남에 첫발을 디뎠다.

1966년 퇴사 후 현지에서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그는 1975년 월남 패망 직후 이란으로 철수해 함께 건너온 베트남 한인 300여 명에게 건설 기술을 전수해 현지 정착을 돕기도 했다.

이 일이 알려져 그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인끼리 합심 단결해 현지사회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수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격려가 담긴 친서를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건설 현장을 누비던 그는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자마자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이후 호찌민에서 성환건설을 운영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으로 진출해 오는 후배 기업인들에게 전수하는데도 앞장섰다.

2003년부터 8년간 베트남 한인원로회 회장, 한인노인연합회 초대회장, 6·25참전전우회장을 지냈고 2007년에는 호찌민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한국학교 설립을 위해 건축추진위원장을 맡아 봉사하기도 했다.

또 정수회 베트남 지회장, 국민실천연합회 베트남지회장,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베트남 지회장,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호찌민 명예회장 등도 역임했다.

그는 한인회·한인상공회 고문으로 한국학교 신축·증축, 장



고 차상덕 베트남 호찌민한인회 고문(좌), 베트남 호찌민 한인회관에서 열린 차상덕 한인회 고문의 한인사회장.

학회 설립을 주도했고, 도박 근절 캠페인과 불우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최근까지 펼쳐왔다. 또 2016년 선거 후 유증으로 한인회가 분열되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합하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차 고문은 평소 “15만 호찌민 한인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주도하는 민간외교관”이라며 “머나먼 타국 살이에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다가 안되면 떠나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양국 관계에도 해가 된다”며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2007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여했다.

호찌민 한인회·노인회는 한인 상공회, 민주평통동남아서부협의회, 한베가족협회, 한인 여성회, NGO 호찌민협회 등 20여 개 단체와 양아들인 이광용·안치복, 수양딸인 이진경 씨와 함께 조문위원회를 구성해 호찌민 한인회관에서 3~4일 조문행사를 열었다.

김종각 한인회장은 “호찌민 한인사회 큰 어른으로 단체 화합·봉사·나눔에 앞장섰기에 업적을 기리고 알리려고 한인사회 첫 한인사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日 한신 대지진 피해자 돌보 재일동포 의사 안극창

일대기 그린 영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개봉

1995년 일본 한신(阪神) 대지진 당시 정신과 의사로 피해를 돌보는 데 앞장섰던 재일동포 3세 고(故) 안극창(安克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1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개봉됐다.

한신대지진은 1995년 1월 17일 오전 호고(兵庫)현 고베시를 비롯해 아와지시마(淡路島), 오사카(大阪) 등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대지진으로 6천434명의 사망자와 4만3천여 명의 부상자를 내고 2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옥과 빌딩은 물론이고 도로·철도·통신시설 등 사회 기간시설도 파괴돼 1천40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낸 대형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고베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던 안 씨는 본인도 다쳤지만 병원을 지키며 밀려드는 환자를 진료했고, 피난소 등을 돌면서 상담 등을 진행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돌보는 봉사에도 앞장섰다.

그는 1년간 이어졌던 진료·봉사 활동을 담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365일'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해 제18회 산토리 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심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는 이후 고베 시립 서부 시민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지내던 중 2000년 12월 간암으로 39세에 사망했다.



재일동포 정신과 의사 고 안극창

안 씨는 책에서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해 지진 25주년을 맞아 안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드라마를 제작해 1~2월 4회분으로 방송했다.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드라마에 호평이 이어

져 지난해 방송문화기금상 TV드라마부문 최우수상, 일본방송비평가단회의 월간 갤럭시상 등을 수상했고 이에 힘을 얻어 극장판 제작이 성사됐다.

영화제작위원회에는 안 씨의 친동생이었던 안성양 씨가 사무국장으로 참여했다. 116분 분량의 극장판에는 안 씨의 일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드라마에서 미공개했던 장면들도 넣었다.

드라마를 기획하고 영화화를 주도한 교우타 미쓰히로(京田光廣) 씨는 "안 씨의 책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료실·피난소·임시주택의 긴박한 상황,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달려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일본에서 소수인 재일동포로 살아가는 안 씨와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묘사했다"며 "가족애·부부애뿐만 아니라 안 씨의 훌륭한 인간애가 넘치는 영화"라고 밝혔다.

일본영화비평가대상 신인상을 받는 등 영화와 드라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에모토 타스쿠(柄本佑)가 주인공인 안 씨 역을 맡았고 재일동포 부인역은 오노 미치코(尾野真千子)가 열연했다. **창**



재일동포 정신과 의사 안극창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 1월 29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했다(좌).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한신대지진 당시의 피해 모습.

미주한인 이민 118년... 코로나19속 미국 곳곳서 기념행사 기념비 헌화 · 한인상 수여 · 기념 대회 등 풍성한 잔치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한인이 도착한 지 118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미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미주한인재단-워싱턴(회장 이미셀)이 마련한 제 16회 미주한인의 날 축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일 온라인 생방송으로 마련됐다.

메릴랜드 저먼타운의 한 방송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118년전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선조들이 서로 돕고 격려한 그 정신은 고스란히 오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2020년은 미국 연방의회에 네 명의 한국계 의원이 동시에 진출하게 되어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인 이민 본고장’인 하와이의 한인들은 1월 13일 사탕수수 농장 초기 이민자들의 묘역 푸우이키에 세워진 ‘이민 100주년 기념 추모비’를 찾아 11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하와이 한인회(회장 박봉룡)는 코로나19로 같은 날 오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온라인(Zoom)으로 기념식을 열었다.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기념일 당일 온라인으로 ‘제61주년 뉴욕 한인의 밤 · 118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미주한인재단-워싱턴은 1월 13일 16회 미주한인의 날 축전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좌). 사탕수수 농장 초기 이민자들의 묘역 하와이 푸우이키에 세워진 기념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한 40여 개 단체에 표창장을 전달하고, ‘올해의 한인상’ 수상식도 열었다. 한인상에는 21희망재단의 변종덕 이사장이, ‘올해의 단체상’에는 한인 2세들이 설립한 자선단체 ‘내일재단’(Naeil)이 각각 선정됐다.

메릴랜드한인회(회장 이태수)는 같은 날 메릴랜드 한인회관에서 ‘한인 이민 118주년 · 제16회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연방의회는 2005년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이태수 회장은 “한인과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 자긍심 고취로 한인 이민사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샌디에고 한인회는 미주한인의 날을 맞아 샌디에고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마스

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올해 1호 결의안으로 ‘태권도의 날’ 제정을 발의했던 친한파 의원인 새런 쿼크-실바(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주한인이민 118주년을 기념, 축하하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ACR-2)을 2호로 냈다.

쿼크-실바 의원은 “한인사회가 미국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발전에 기여했다”고 결의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양원에서 가결되면 주지사 서명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된다.

LA한국교육원(원장 신주식)은 앞서 지난해말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한국문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의 멋’을 주제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열었다. [▶](#)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 “새로운 100년 만들 계기”

1920년 9월 20일 장윤원 자카르타 도착이 한인사 시발점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한 세기 동안 한인과 한인기업의 성공 진출사를 담은 100년사가 출간됐다.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한인이 참여한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최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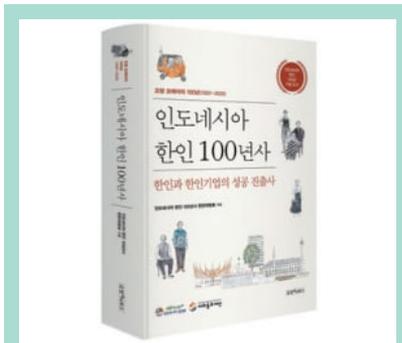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한인 역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금을 지원한 장윤원(張潤遠) 선생이 망명 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자카르타에 도착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한인회는 지난해 7월 100년사 편찬위를 출범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1년 넘게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고증을 거쳐 511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박재한 한인회장은 “일제강점기에 이름조차 낯설던 인도네시아 땅에 조선인 군속을 비롯해 수많은 한인이 징용의 세월을 살고, 전범 재판에 몰려 목숨을 잃었다”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온 개척자들로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기록된 역사가 없는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100년사를 통해 한인 동포 사회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인 100년사에 따르면 장윤원 선생은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한인이 참여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가 최근 출간됐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에서 최근 열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책을 들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에서 일하면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돼 1920년 인도네시아로 망명했다. 이후 1942년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 후 체포돼 옥고를 치렀고 고문 후유증으로 1947년 11월 사망했다.

1942년 조선 청년 1천400여 명이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 감시원으로 인도네시

아에 왔고, 일본 패망 후 일부가 남아서 이주민 역사를 이어갔다. 이 중에 양철성은 일본 패망 후 재지배를 꿈꾸는 네덜란드에 맞서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합류해 폭탄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외국인 독립 영웅으로 추서됐다.

포로감시원들과 함께 조선 소녀 수십 명이 위안부로 끌려왔으며 그 가운데 고(故) 정서운 할머니가 2004년 숨지기 전 위안부 시절을 육성으로 남겨 세상에 알렸다.

1968년에는 한국의 해외투자 1호 기업인 한국남방개발(코데코), 1969년에는 목재 사업을 하는 한인기업 코린도가 설립됐고, 1973년 한-인도네시아 정식수교가 이뤄졌다.

한국·한인 기업들은 자원개발에 이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신발·봉제·섬유업에 투자했고, 1980년대 말 삼성전자·LG전자, 2000년대 포스코,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한 뒤 작년부턴 현대자동차가 서부 자바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다.

한인 100년사 편찬위는 “현지에서 맨 땅에 일군 한인 토종 기업의 눈부신 자력 성장과 모국 대기업의 투자는 관련 기업 동반성장의 원동력이 돼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2천여 개가 현지인 10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

가족상봉

박시드니(덴마크)

숨을 쉴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물이 너무 무서웠다.
 어른이 되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쯤
 퇴근 후 취미활동이란 걸 찾아봤다.
 푸하 푸하 숨 내쉬기와 팔다리 동작을 배우며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배웠다.
 그중 내 몸은 겨우 자유형만을 고집했다.

검푸른 남태평양의 바다는 광활한 우주가 되어 나를 단번에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우주복 없이 맨몸으로 은하계를 떠도는 듯 거대한 공포가 나
 의 심장을 한없이 짓눌렀다.

죽어도 좋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를 악물었다.

소원하던 바를 이루고 죽는다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행복
 하게 죽을 수 있다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3천 미터의 심해가 아니라
 동네 2 미터 깊이 수영장에 들어와 있는 거라 설득을 시작
 했다.

집채만 한 혹등고래가 으르렁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심해에서 그 노랫소리는 만 배로 증폭되어 내 심장을 울렸다.

그 애절한 소리가 몸속으로 녹아 퍼져 눈물이 되었다.

천사의 하얀 날개처럼 긴 지느러미를 휘날리며
 아기 고래가 서 있는 자세로 물 위로 날아 올라가 얼굴을 뺨뚱
 하게 내밀어 숨을 들이쉰다.

호기심 가득한 아기 고래는 잦은 호흡을 위해 5분마다 물 위
 로 올라가야 한다.

때문에 고래잡이배들은 우선 잡기 쉬운 아기 고래를 잡아 배
 편에 묶어 미끼로 사용했다.

아기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따라오는 어미 고래를 잡기 위
 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시절이다.

호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대형고래들이 거의 멸종했었다.

피바다 속으로 거품이 되어 사라졌었다.

하지만 식용을 위해서 아직도 고래 사냥을 하는 파렴치한 나
 라들이 있다.

다행하게도 이젠 고래잡이배를 고래관광선이 대신하고

드문 곳에선 고래와 수영도 가능하다.

나는 어미 고래가 되어 사랑을 머금은 눈동자로 아기의 움직
 임을 따라간다.

팔을 길게 뻗어 손을 내밀면 손끝에 닿을 듯 말듯 아기 고래가
 다가왔다 멀어졌다 숨바꼭질을 한다.

여전히 나는 깊은 바다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어서 들어오라 손짓
 한다.

바닷속으로 뛰어들고픈 충동을 참은 지 오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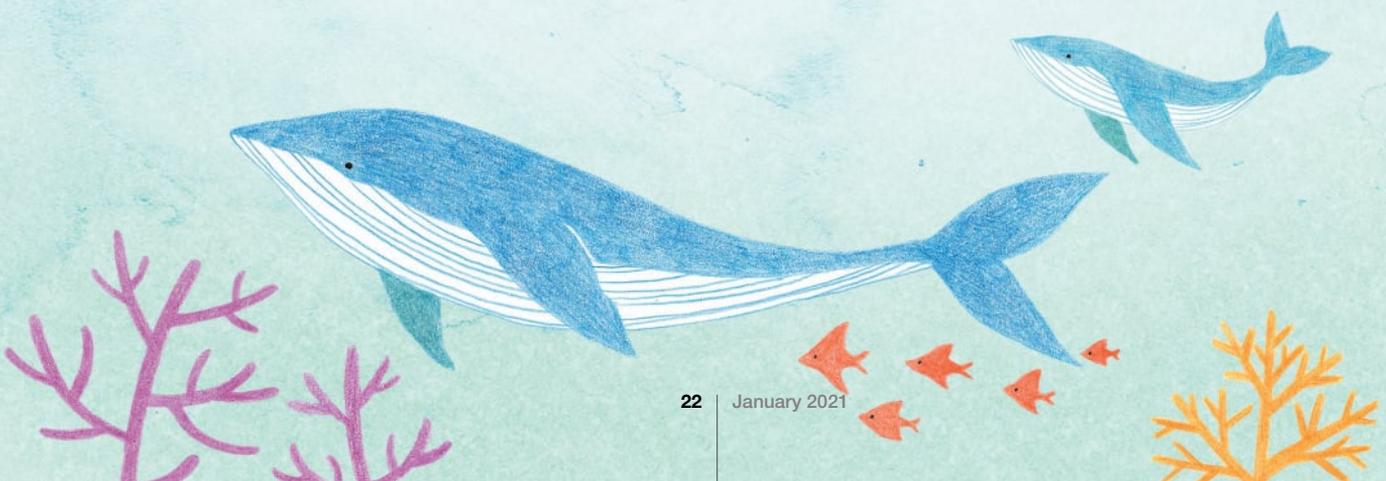
죽어도 좋다는 배짱 두둑이 삼켜 먹고

드디어 백만 년 동안 그리움에 애태우던 가족의 상봉 시간
 이다.

지금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오래전 나는 고래였고

영겁의 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나의 고래 가족을 만나고 있다.

우주같이 드넓고 검푸른 남태평양 속에서 **창**



바른 말 고운 말

추호도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리라고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이 대화에서처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할 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쓴 ‘추호’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추호’는 ‘가을 추(秋)’에 ‘가는 털 호(毫)’자를 쓰는데, 이 말은 본래 가을 짐승의 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짐승의 털이 매우 가늘어지는데, ‘추호도 없다’는 말은 가늘어진 털 하나조차도 없을 정도라는 뜻이니, 전혀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추호도 없다’는 말은 아주 적거나 거의 없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를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추호의 거짓 없이 증언했다.” 위의 예문에서처럼 ‘추호’라는 말은 대개 ‘추호도’ 또는 ‘추호의 OO’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이 말 뒤에는 부정하는 표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띄어쓰기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글을 보면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표어나 안내 표지 같은 것에서 띄어쓰기를 잘못된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에서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는 말로 ‘와, 과, 하고, 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배’, ‘산과 바다’, ‘책하고 공책’, ‘언니랑 동생’에서처럼 ‘와, 과, 하고, 랑’은 앞 명사에 붙여 써야 합니다. 조사는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 뒤에 종속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말을 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 중에서 ‘사과 및 배’에서와 같이 쓰는 ‘및’이라는 말은 접속 부사로서 앞 명사에 붙여 쓰지 않고 띄어서 써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라는 뜻으로 쓰는 ‘한 달 내지 두 달’에 쓰인 ‘내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접속 부사로 앞의 명사와 띄어서 씁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오른쪽 방향 열쇠

1. 일정한 보수를 받고 남의 집에 가서 학문이나 기예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배추를 통째로 소금에 절여 씻은 다음 맵지 않은 소를 잎 사이에 넣어 소금물을 부어 익힌 김치
5.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이상한 술법.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 보이는 재주
7. 진공 유리관 안쪽에 형광 물질을 칠하여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으로 바꾼 조명 장치
9. 추저분하고 창피스러운 태도나 짓거리. ‘○○’를 부리다
10. 독성을 가진 약재. 극약보다 독성이 한층 강해 사람이나 동물이 극히 적은 양을 마시거나 먹거나 피부로 주입하더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12. 내장의 일부로, 소장(胃)의 끝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기관을 말하며 큰창자라고도 불리죠
13. 한 집안의 만손자를 부르는 말
14. 나는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15. 서로 간에 인사나 친선 등의 표시로 서로 손을 내어 마주 잡고 흔드는 것
17. 더 좋거나 높은 직위로 옮겨감
19. 남대문은 한국의 ‘○○’ 제1호다. 보물 제1호는 동대문
20. 몸의 생식 기능이 거의 완성되며, 이성(異性)에 관심을 두게 되는 젊은 시절
22. 돼지의 발을 요리한 음식
24. 수분을 제거하는 일. 세탁하고 ‘○○’를 한 다음 말려야 한다
25. 사람이나 동물 등 생물이 자라남. 아이들의 ‘○’을 지켜보다

▶ 아래쪽 방향 열쇠

1.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2. 네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네모꼴
3. 백열 가스등이나 백열 전기등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4. 대구(大口) 과(科)에 딸린 바다 생선. 이 생선을 열리면 동태, 말리면 북어라고 하죠
6. 술을 담그거나 담야 두는 독
8. 철이나 구리, 금 등 광석을 캐내는 곳
9. 원시 사회의 부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
11. 약을 파는 사람
12. 발해를 세운 사람
15. 음악의 곡조를 일정한 부호를 써서 나타낸 것. ‘○’을 보면서 연주해라
16. 만물이 푸른 봄이라는 뜻으로 ‘스무 살 안팎의 젊은 나이’를 비유해 이르는 말
18. 예전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천으로 발을 옥죄어 자라지 못하게 하던 풍속, 또는 그렇게 만든 발
19. 국화 모양의 틀에 반죽을 넣어 구운 빵
20. 사형의 판결을 받는 죄수
21.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이라는 뜻. 위세 있거나 훌륭한 사람들, 또는 그들이 많이 모인 모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3. 발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발을 안 씻으면 이 냄새가 많이 나죠

▶ 2020년 12월호 정답

	복	한		김	장		감	기
이		자	석		기	자		역
산	전		탄	소		매	미	
	설	사		문	학		역	사
수		진	단		교	수		전
출	판		점	거		정	자	
	화	분		복	어		유	물

재외동포재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협약 체결

재외동포재단은 1월 15일 제주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인적자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인적자원 협력, 필요 직무 관련 상호 인사교류, 채용·배치·평가·육성 등 인적자원관리 노하우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 교류와 관련해 파견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되 교류 직위 특성을 감안해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JDC는 제주의 가치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출범했다.

이날 협약식에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성곤 이사장, 오영훈 기획이사, 정광일 사업이사 등 6명이 참여했고, JDC에서는 문대림 이사장, 강승수 경영기획본부장, 김기영 인사관리실장 등 5명이 함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1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인적자원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문대림 JDC 이사장과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사업이사에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임명

정광일(60)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에 임명됐다. 정 이사는 1월 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그는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뉴욕 동아일보·세계일보 기자, 라디오코리아 방송실장, TKC 한국방송 보도국장, 코리아스트리트저널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 사무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해외동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해왔다. 또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로 재외국민 투표 참여 운동과 재외동포청 설립 운동에 앞장서왔다.

정 이사는 “35년간 동포사회 관련 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동반성장을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현지 정착 지원 사업 추진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의 현지 정착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45세 미만의 해외 입양인과 그 자녀인 2세, 3세의 권익 신장, 안정적 정착, 정체성 확립과 민족 유대감 형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활성화가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시민권 미취득 입양동포를 위한 법적 지원과 자문, 현지 정치력 시장, 지역·국가별 실태조사, 한글캠프와 한국문화 체험활동, 모국 방문, 맞춤형 한글 교실 운영, 동포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지역의 입양동포 자생 단체나 입양동포 양부모 단체, 입양동포를 지원하는 한인회·한글학교·문화예술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 수요 조사를 추진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은 재단은 2월 중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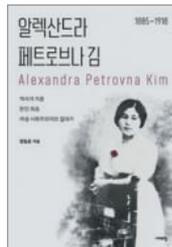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입양단체 주최로 열린 '국내 체류 해외입양인을 위한 설날잔치'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정철훈(시대의 창)
전 일생을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전념했지만, 이념 갈등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의 평전이 출간됐다.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러시아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볼셰비키당에 가입하고 러시아 혁명에 참여한 한인 2세, 한국 이름은 '김수라'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독립운동가 구명 활동에 앞장선 그녀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데올로기의 역사 속에서 잊힌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확인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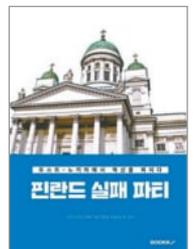


소중한 이웃, 정맥산업 속의 재일동포의 존재 유정수(박영사)
'정맥산업'은 사회·경제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다시 가공 처리하여 사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체하는 산업이다. 폐기물이 다시 자원 순환에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재일동포의 역할이 컸을 정도로 종사자도 많다. 이 도서에서는 재일동포가 정맥산업에서 어떻게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정맥산업의 역사와 사회구조를 한인 연구자의 눈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 정맥산업에서 우뚝 선 재일동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역사·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사실을 알아보자.



핀란드 실패 파티 핀란드한인과학기술협회, 박솔잎 외 공저(부크크)
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와 동포 연구자들이 핀란드 실패들의 사례를 밝혀보고 한국의 미래 혁신을 고민하는 도서를 펴냈다. 핀란드의 기업 중에는 내부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 할 때면 실패 파티를 여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공유한 후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함께 갖는다. 핀란드의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성공을 위해 급급했던 우리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750만 개의 영롱한 구슬을 실에 꿰어 보배로 만듭시다”

새해 들어 직장을 옮겼습니다. 30여 년 기자 생활 가운데 마지막 8년 남짓한 기간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에서 보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흔히 던지는 질문이 “한민족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란 것이었습니다. “재외동포와 다문화 분야에 관한 취재·보도와 관련 공익사업을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으레 “좋은 일하시네요”란 덕담이 돌아오더군요. 예나 지금이나 기사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탓인지 주변 사람한테서 좋은 일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기에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외동포나 다문화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말과는 딴판으로 읽는 사람도 적고 댓글도 잠잠했으니까요. 어쩌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도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는 ‘악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이른바 핵심 부서나 인기 부서 쪽에는 들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죠.

재외동포에 관한 정부 정책이나 국민 여론도 비슷합니다. 정치인이나 고위 당국자들은 재외동포가 위기 때마다 조국에 힘을 보탤고,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에 관한 각종 법률 규정, 예산, 인력 등은 뒷전이 일쑤죠.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들은 한민회 관계자들을 만나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재외동포들의 푸념도 솔하게 들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년마다 발표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 결과를 봐도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한다”거나 “해외 이민이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반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시선은 부정적인 듯합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재외동포들은 병역이나 납세 등의 무는 지지 않고 건강보험이나 재난지원금 등 혜택만 보려 한다고 지레짐작하죠. 심지어 국내 귀환 동포들의 집단 거주지가 범죄의 소굴이라거나 감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재외동포 분야를 취재하면서 다양한 사연을 지닌 동포들을 만나고 선조들의 한 맺힌 발자취를 더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도 자주 있었고, 가슴 뿌듯할 때도 많았습니다. 재외동포 한분 한분이 빛나는 보석입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상흔이 유독 깊기에 재외동포들도 영롱한 광채를 띠고 있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세계 각국에 흩어진 750만 개의 구슬을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실로 꿰어 보배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이고 동포 관련 단체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채 떠나게 된 것이 아쉽고도 송구스럽습니다. 곁에서나마 힘껏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창**

이 희 용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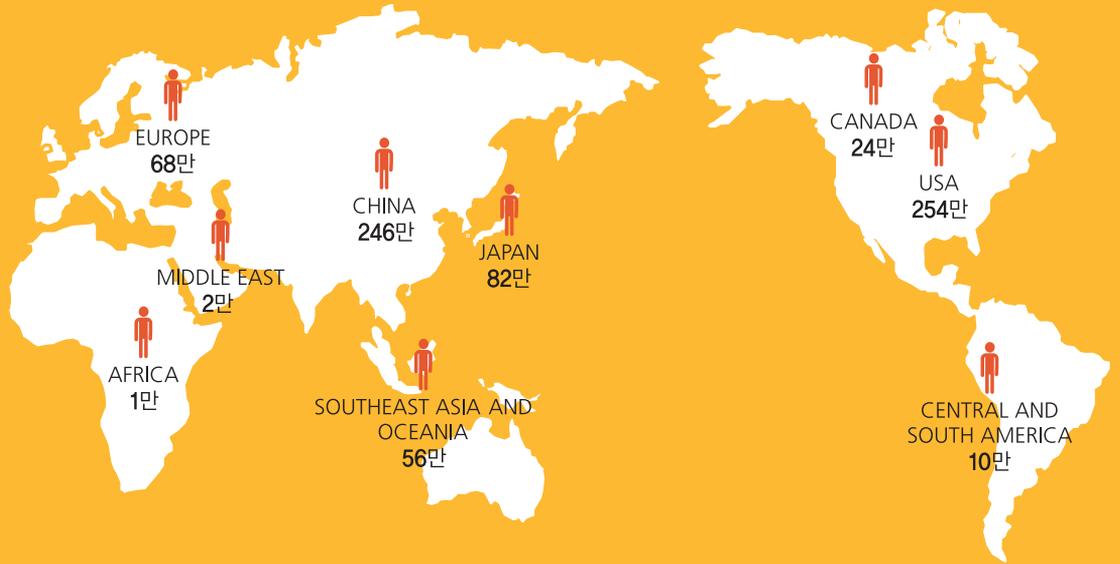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